



사진 | 최민석

**BEST
CHOICE**

효원인 감동공유! 감동 깊게 읽은 책을 추천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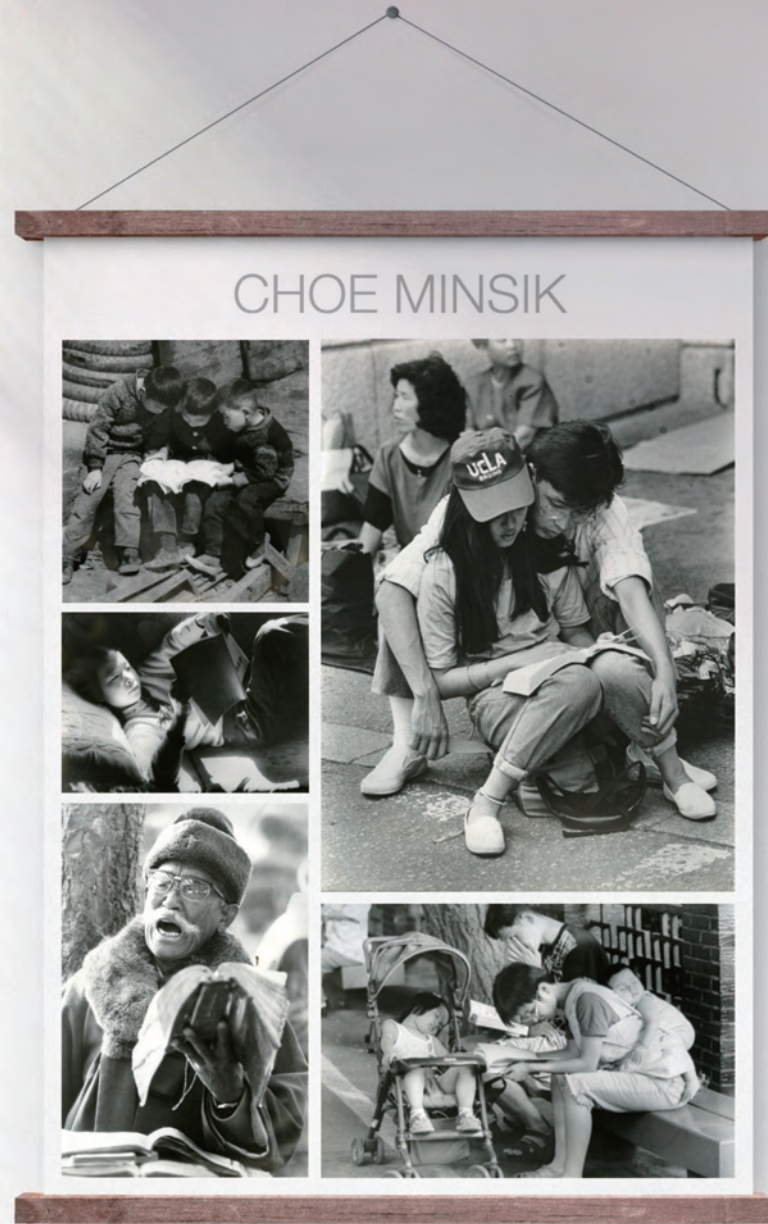
내 삶에 영향을 준 좋은 책을 추천함으로써
친구, 선후배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져보세요.

- **참가대상** | 부산대학교 학부생
- **추천대상도서**
판타지, 만화, 선정적 도서, 무협지 등을 제외한 모든 도서
- **응모방법**
부산대학교 '책 읽는 대학'(<http://reading.pusan.ac.kr>) 온라인 응모
- **모집기한** | 2014. 11. 30.까지
- **우수추천서 발표** | 2014. 12월 중
- **우수추천서 시상** | 50명, 도서상품권(1만원) 지급
(1인당 최대 3건까지 추천 가능)
- **문의** |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309)



이 지면은 향후 도서관 발전기금을 출연한 개인이나 기관을 위한 광고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고협찬을 원하시는 분은 기획홍보팀 담당자(051-510-1810)에게 문의 바랍니다.

똑똑,
문을 열다



최민식 사진전 '사진, 책을 담다'(2010, 부산대학교도서관) 中

COVER STORY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많다.

지식과 지혜를 얻고, 깨달음과 즐거움을 얻고,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힘들 때는 그 순간을 견딜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며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미래의 전망도 밝혀준다.
꿈을 심어주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도 만들어준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훌륭하게 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위대한 책은 그 자체가 하나의 행동이며,
모든 위대한 행동은 그 자체가 한 권의 책이다.

대한민국 1세대 다큐멘터리 사진가
최민식(崔敏植, 1928-2013)

효원 도서관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Newsletter **도서관소식지**

CONTENTS

- 04 캠퍼스와 도서관의 역사 도서관 싹을 틔우다
- 08 교수의 서재 나의 서재, 나의 자화상
- 10 아름다운 인터뷰 도서관자치위원회
- 12 도서관을 열어가는 사람들 나노생명과학도서관
- 14 세계의 대학도서관 하이델베르크 대학도서관
- 16 통계로 보는 도서관 2014년 상반기를 빛낸 책과 효원인
- 18 즐기는 책세상 드라마 속 '그 책'
- 20 문화공감 영화관에서 놓친 영화, 도서관에서 다시 보자!
도서관에서 만나보는 스마트한 독서생활
- 22 시선집중
- 23 도서관 후원

발행처 부산대학교도서관 발행인 김기혁 발행일 2014. 10. 31.
편집 김수진, 남기홍, 박지영, 최민영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전화 051-510-1810 팩스 051-513-9733 이메일 free1021@pusan.ac.kr
홈페이지 <http://lib.pusan.ac.kr> 디자인 디자인웍스 051-248-1513

<효원 in 도서관>은 도서관 블로그(<http://lib.pusan.ac.kr/pnublog>)에서도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도서관은 1946년 부산대학교 개교와 함께 설립되어, 예순 여덟 해가 흐르는 세월 동안 효원인 곁에서 묵묵히 성장해왔다. 우리 도서관이 걸어온 시간들을 되짚어 보는 '캠퍼스와 도서관의 역사'를 기획·연재하여 도서관의 소중한 기록들을 나누어보고자 한다.

※ 본문은 2009년 발간한 『부산대학교 도서관사 1946~2008』에서 주로 발췌·작성하였다.

도서관 싹을 틔우다 1946. 5 ~ 1966.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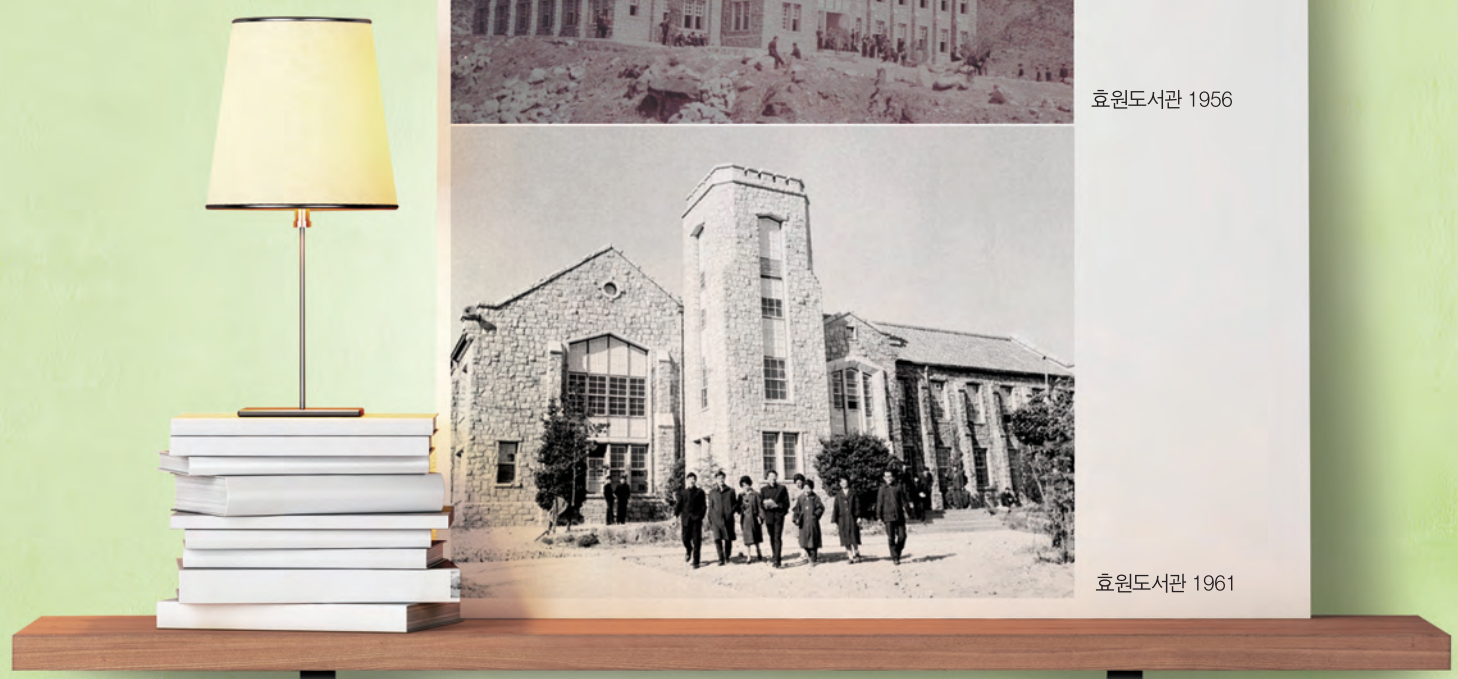
설립을 위한 터전 마련하다

1946~1952 설립과 파란지 시절의 도서관

부산대학교도서관은 1946년 5월 15일 부산대학교 개교와 동시에 부산시 남구 대연동 구 수산대학(현 부경대학교) 건물에 사무국 산하기관으로 설치되었다. 당시 부산대학교는 국립대학 설립 및 교사(校舍)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은 독자적인 건물 없이 가교사나 가건물에 자료를 비치하고 있었으며, 특별히 교육받은 사서도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당시에는 도서구입비를 확보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도서구입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출판물은 거의 대부분 지질이나 내용이 저급한 팜플렛류에 불과했고 외국서적은 구입통로가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서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남도 재무청의 미국인 고문관인 클렘머 소령의 주선으로 영도에 있는 재무청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약 5만권의 도서를 인수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도서는 철수해가는 일본인들의 화물을 미군정청이 부산부두에서 입수하여 관재청이 관리해온 소위 적산(敵産) 가운데 일부분이었다. 이렇게 입수된 5만권의 도서들은 여러 곳으로 옮겨져 관리하다가 1947년 4월 서대신동 3가 335번지의 임시교사 건물로 옮겨진 후 정식으로 정리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전쟁 중 서대신동 3가 335번지 교사는 육군이 점령하고 있었고, 부산대학교도서관 장서는 육군에 보관을 위임한 상태였다. 1952년 4월에 육군통신학교로부터 도서관 장서를 인수하여 목조 신교사(충무동 교사 시절)로 운반해왔다. 5월 초순경 문리학부 문과계 조교를 도서관에 배치하여 한국십진분류법(K.D.C, 박봉석 편)에 따라 전 장서를 재분류하였고, 신축 목조교사의 선관(과학관)교실을 할애 받아 우선 정리된 도서만이라도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부산대학교도서관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휴관한 지 2년 2개월 만에 겨우 재개관할 수 있었고, 1953년 4월 수업장소로만 이용되던 진관을 본래의 용도대로 도서관 서고와 열람실로 이용하게 되었다.



1953~1966 부산대학교 부속도서관

1953년 4월 3일 대통령(당시 이승만 대통령)령에 의하여 부산대학교가 종합대학교로 승격됨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이 '부산대학교 부속도서관'으로 변경되었다. 1954년 새 학기가 시작되던 4월까지 대신동 교문 가까이에 새로 건립된 건물인 진관으로 이전하여 도서관을 재개관하게 되었다. 이때 처음으로 도서관 출입구를 지키는 수위가 등장하였고, 이용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반개가제의 참고열람실을 운영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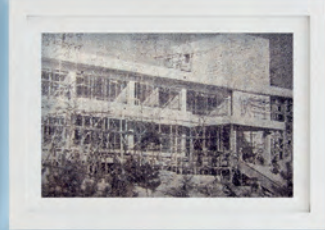
1953년 종합대학교로 승격한 이후 윤인구 초대총장은 향후 학생 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동래구 장전동 일대 50만평을 확보하였다. 1955년 9월 대학원 및 도서관 건물이 착공되어, 이듬해 1956년 9월초에 완공하여 '효원도서관'(현 박물관)을 개관하였다. 효원도서관은 대학원교사에 연결된 공동 건물로 중앙도서관이

건립될 때까지 임시 도서관의 역할을 하였다. 이 건물은 고딕 스타일을 본뜬 'm' 자형의 건물로서 전면(동쪽) 상층은 대학원, 남쪽 상층부분은 중강당으로 활용하였고, 'm' 자형의 나머지면과 하층을 도서관이 사용하였다. 이 건물은 프랑스 대건축가 르 꼬르뷔제(Le Corbusier)에게 사사받은 건축가 김종업이 설계한 것으로, 총 건평 492평에 공사비는 3,461만 8,000환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효원부지 내 산재하였던 암석을 채석·절단하여 도서관, 박물관 등 석조건물의 건축자재로 사용하였다. 중강당 아래의 하층 전체를 이용하던 도서관 학생 열람실의 좌석수는 200여석이었는데, 당시 국내 타 대학의 좌석수나 총학생수에 비해서 열람석은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건물의 준공을 앞두고 정초식에 참석한 윤인구 총장과 설계자 김종업을 비롯한 참석 교수 전원은 명함 한 장씩을 외벽 속에 넣은 후 정초석을 시멘트로 봉하였다. 1956년 11월 5일로 연기된 개교 10주년 기념 행사의 일부로 도서관 건물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중앙도서관 기공식



신축중인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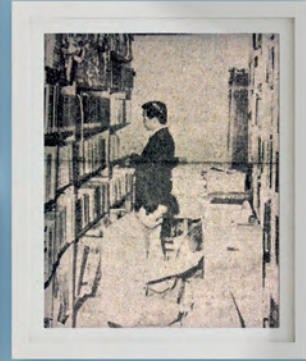
중앙도서관 개관 당시 열람실



도서관으로 책을 옮기는 모습



중앙도서관 개관식



중앙도서관 서고



중앙도서관 조감도



중앙도서관 전경

중앙도서관(구 자율도서관) 건립 및 개관

1963~1966 중앙도서관 건립 준비

1953년 종합대학교로 승격한 부산대학교는 발전을 거듭하였고 세계 수준의 대학이 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당시 도서관 건립은 부산대학교의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었다. 1963년 4월 9일 교무회의에서 중앙도서관 신축을 결의하고 도서관 신축위원회를 결성하였고, 1963년 6월부터 8월까지 새로 구성된 설계단이 공동으로 신축도서관을 설계하였다. 1차 회의에서 도서관의 규모, 장소 등을 논의하여 총건평 1,200여 평의 공간에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열람좌석 700석 규모의 3층 콘크리트 신축도서관을 대강당(현 10.16 기념관) 우측에 건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설계된 청사진에 의하면 신축도서관은 음향·조명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총건평 1,222평, 반지하층을 포함하여 5층의 현대식 건물로 20만권의 장서를 보존할 수 있는 복층 서고를 두었다. 5차 공사를 완료한 시점에 기존도서관의 일부를 옮겨 1966년 4월 25일 신축도서관의 열람실만 우선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1966년 5월 개교 20주년을 맞아 도서관을 개관하여 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7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열람실, 참고도서실, 시청각교육실 등이 확보된

단독건물의 도서관 설립으로 도서관은 진정한 대학의 심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1966년 5월15일 개교기념일을 맞아, 규모와 시설에 있어 당시의 국내 타 대학 도서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중앙도서관이 신축 개관하였다. 개관식은 신기석 총장, 이완영 도서관장, 정일권 국무총리 등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도서관 현관에서 거행되었다.

새로 개관된 중앙도서관은 '연구하는 교수, 공부하는 학생'이란 목표 아래 대학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학습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대학의 심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중앙도서관의 1층에는 열람실과 대출실, 참고열람실, 신문열람실, 목록실, 휴게실을 겸한 로비를 두었고, 2층에는 일반열람실, 교수열람실, 사무실, 사서실, 도서관장실을 두었다.

이후 중앙도서관은 현재의 제2도서관이 1980년 9월에 개관함에 따라 1980년 9월부터 과학분관으로, 1999년 1월에는 '자율도서관'이라는 이름의 보존서고로 사용되다가, 2008년 10월 건설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정출헌 한문학과 교수

나의 서재, 나의 자화상



고전은 지난 시절, 자신의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옛사람들이 글로 남긴 생생한 삶의 자취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엄중하게 디디지 않으면 천 길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이 위태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옛사람들이 온몸으로 남겨준 삶의 분투를 가슴 깊이 음미하며 따라 걸어가는 것보다 더 값진 길이 또 어디 있겠는가. 나의 서재가 고전으로 그득 넘쳐나길 바라는 까닭이다.

지난 8월 말, 도서관에서 발간하는 <효원in도서관> 담당자로부터 ‘교수의 서재’라는 칼럼을 써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무척 망설였다. 무슨 내용을 써야 할지 막막했던 까닭이다. 교수의 서재, 웬지 고색창연한 향기가 풍겨야 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내게 서재란 연구공간의 현장, 보다 직설적으로 노동의 삶터라는 느낌 외에 떠오르는 게 그닥 없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교수의 서재에서 그 이상의 어떤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뉴스라든가 시사 프로그램에서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 있으면, 으레 교수 인터뷰가 삽입되곤 한다. 보도의 전문성 또는 진실성을 높이려는 의도일 터다. 그때, 한결같은 장면이 있다. 교수는 연구실, 곧 서재의 서가를 배경 삼아 근엄한 자세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니, PD라든가 촬영기자는 언제나 그런 포즈를 요구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교수의 서재는 사회적 진실성을 담보한다고 여기는 그 무엇, 달리 말하면 지적

권위가 숙성되고 확산되는 산실로 각인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다.

정말 그렇다면, 교수인 나는 지금 그곳에서 어떤 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이 그 즈음에 이르자 칼럼에 응했던 순간을 되돌리고 싶었다. 정말 사회적으로든 학문적으로든 신뢰할 만한 지적 작업이 나의 서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러기엔 나의 서재는 연구실 밖 사람들의 상상과 달리 깊은 성찰의 공간으로서 부족한 점이 턱없이 많다. 사실, 서재란 그 공간 주인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진과도 같다. 어느 집에 방문해서 아이들이 쓰는 방을 보면, 그 아이의 과거와 현재를 단박에 꿰뚫어볼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산다는 집의 거실에 가보면, 으레 유리문이 달린 고급 서가에 《세계문학전집》이라든가 《세계사상사대계》와 같은 거질의 전집류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던 것이다. 줄부들일수록

거실에 비치된 서가의 화려함을 더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긴, 요즘 거실에서는 그런 장식용 서가마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 대신 으리으리한 소파에 대형 벽걸이 티브이가 벽면 전체를 장식하고 있다. 이처럼 달라진 풍속도가 현재 서재의 위상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서재하면 으레 교수와 같은 사람이나 갖고 있는 전유물처럼 생각하게 되었을 터다.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가 공핍했던 60-70년대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나로서는 나만의 공부방을 가져보는 게 소원일 정도였으니, 서재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엄청난 사치에 속했다. 그러다가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생겼을 때의 그 기쁨, 그리고 대학 새내기를 대상으로 교정을 돌아다니며 전집류를 팔던 책장사에게 《한국문학전집》과 <창작과비평> 영인본을 할부로 사서 책꽂이에 꽂아놓았을 때의 그 감동. 그것이 나의 서재라면 서재의 첫 출발이었던 셈이다. 고등학교 시절의 교과서를 노끈으로 질끈 묶어 강생이와 바껴먹던 순간의 그 통쾌함과 새로운 교양서적들이 대신 들어차던 순간의 그 뿌듯함. 흔히 ‘불의 연대기’라고 불리던 1980-90년대에 대학을 다니던 젊은이가 대개 그러했던 것처럼, 나의 책상 앞 서가에는 전공과는 거리가 먼 사회과학 서적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넓혀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른바 불온서적이라 불리기도 했던 거기에는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도 섞여 있었다.

지금은 『전태일 평전』으로 이름을 바꿔 출간되고 있지만, 그때는 ‘전-태-일’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낯설었던 시절이다. 그때 선후배와 읽었던 전태일의 삶과 죽음의 여정은 문학청년을 꿈꾸던 내게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온몸을 불사르며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 외쳤던 마지막 절규도 가슴 먹먹하게 만들었지만, ‘나도 대학생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던 평소의 바람은 더욱 가슴 짠하게 다가왔다. 물론 전태일이 대학생 친구를 갖고 싶었던 이유는 대학에 대한 사치스런 동경이 아니었다. 어려운

한자가 빼곡한 근로기준법의 조문을 대신 읽고 설명해줄 벗이 필요했던 것이다. 선배들과 『논어』를 강독하며 한문 글귀를 조금씩 배워나가던 그 즈음, 그의 소망은 내 삶의 전환을 가져다준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 대학생 사이에서는 노동자와의 연대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었다. 어떤 친구는 노동자와 함께 쟁들을 던지기 위해 거리투쟁으로 나서기도 했고, 어떤 친구는 노동자의 삶을 살겠다며 학교를 때려치고 아예 공장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어찌할 줄 몰라 주저하던 내게 전태일의 간절했던 그 소망은 현실에 눈감은 채 학문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 명분이 되기도 했고, 그 이후 공부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자극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소중했던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은 지금 내 서재의 서가에서 찾아볼 수 없다. 누군가에게 빌려주었는데, 아직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만은 아니다. 굳이, 되돌려 받으려 노력하지 않았던 탓이 크다. 것처럼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내 서가는 점점 전공 서적들로 채워져 갔다. 그 대신 학부 시절 스테디를 위해 하나 둘씩 구입했던 사회과학 서적들은 점차 서가의 구석으로 밀려나기 시작했고, 지금 연구실의 서가에는 남아 있는 게 거의 없다. 집에 있는 책장의 맨 구석에 꽂힌 채 보관되어 있을 따름이다. 그나마 많은 이사를 다니면서도 낡은 책들을 차마 버리지 않은 까닭은 젊은 시절의 첫정이 아련하게 배어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지금 나의 서재에는 교수로서 전공하고 있는 한문 고전 관련 서적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들은 논문을 쓰거나 강의 준비를 할 때, 잠시 빼어 훑어보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지는 지식의 도구로 전략해버렸다. 나만 그런 것일까, 아니면 논문의 양적 생산을 강요받고 있는 대학 교수 대부분도 그런 것일까? 어쨌든 ‘교수의 서재’인 지금 내 서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렇듯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구동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새로 나온 연구서를 중심으로 서재를

갖춰가려 애썼지만, 요즘은 그런 노력도 시들해져가고 있다. 대신 한국과 동양의 고전을 하나둘씩 찾아 갖춰가고 있는 중이다. 눈이 번쩍 뜨이는 참신한 연구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읽어낸 연구서들보다는 무미건조해 보이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곱씹을 만한 대목이 솟아나는 고전 읽기에 점점 맛을 들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반증일까? 어쨌든 유행가 가사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식상하게 되는 연구서보다는 오랜 시간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성한 시대정신을 갈무리하고 있는 고전으로 가득 찬 나의 서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퇴계 이황은 평생소원이던 도산서당을 지어놓고 그 기쁨을 『도산십이곡』에 담아 학동들에게 가르쳐 늘상 부르게 했다.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봐어 / 고인을 못 봐어도 가던 길 앞에 있네. /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꼬?”라는 낮익은 시조도 그 중 하나이다. 예전에는 무심하게 읽어 넘겼던 그 시조의 속뜻이 요즘 내겐 너무나도 절실하게 다가온다.

고전은 지난 시절, 자신의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옛사람들이 글로 남긴 생생한 삶의 자취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엄중하게 디디지 않으면 천 길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이 위태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옛사람들이 온몸으로 남겨준 삶의 분투를 가슴 깊이 음미하며 따라 걸어가는 것보다 더 값진 길이 또 어디 있겠는가. 나의 서재가 고전으로 그득 넘쳐나길 바라는 까닭이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모습이 변해가듯,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서재도 변해가기 마련이다. 평생 교육과 연구를 업으로 삼고자하는 교수의 서재라면 더욱 그러해야 한다. 넓어지고 깊어지는 학문의 여정을 성실히 따라 가다보면, 서재의 모습도 바뀌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나의 서재도 그런 변화의 궤적을 충실하게 밟아가고 있는 것일까? 칼럼을 쓰며 새삼 둘러보니, 서가에 꽂혀 있는 책들이 산만하기 그지없다. 나의 생활을 다잡아야 할 순간이다. 이런 다짐의 계기를 마련해준 도서관 담당자가 원망스럽지 않고 고마운 까닭이다.

圖 自 委

도서관 자치 위원회

'아름다운' 도서관 이용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다

1999년 제2도서관 입구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당시 극심했던 좌석 대리점유와 독점 현상으로 열람실 이용에 불편을 겪던 학생들이 참다못해 공청회를 연 것이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그동안 잘못된 열람실 이용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방안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공청회를 주도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도서관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도서관자치위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평소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면 좀처럼 보기 힘들지만, 알고 보면 보다 좋은 열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도서관자치위원회를 소개한다.

도서관자치위원회는?

도서관, 특히 학생들이 주로 공부하는 열람실의 잘못된 이용행태를 바로잡고 보다 쾌적한 열람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활동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설립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도서관자치위원회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문제의식과 해결의지를 바탕으로 시작된 학생자치단체이다. 따라서 동아리와는 그 성격이 다르며 총학생회나 기타 학내 단체 및 도서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자치기구이다.

구성원

도서관자치위원회는 1999년 6명으로 시작한 이후 그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는 약 13명의 학생들이 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치위원 모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다양한 지역, 출신학과 및 높은 평균연령을 자랑(?)하고 있다. 도서관자치위원회의 활동은 상당한 책임과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치위원이 되면 최소 1년 이상 의무적으로 활동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요활동

도서관자치위원회는 활동목적에 맞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은 자리정리로써 시험기간에 시행하는 '시험기간 자리정리'와 평소 시행하는 '야간 자리정리'가 있다. '야간 자리정리'는 방학기간을 포함해 매주 2회 이상, 밤 11시에 시행하고 있다. '야간 자리정리'를 통해 사용하지 않고 짐만 올려놓은 좌석을 정리하여 실 좌석수를 확보하고 열람실 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청소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시험기간 자리정리'는 도서관 이용자가 급증하는 시험기간 동안 좌석독점과 대리발급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좌석 대리발급으로 정작 도서관을 방문한 학생들이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매일 아침 7시 30분과 매일 밤 12시 두 차례에 자리정리를 시행하고 있다. '시험기간 자리정리' 중에는 모든 열람실의 출입을 막고 이용자가 없는 좌석을 모두 강제반납 하고 있다. 무료사물함 배정은 도서관자치위원회의 또 다른 주요 활동 중 하나이다. 2005년 수개월 간의 사전조사와 대학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무료사물함을 도입한 이후, 매 학기마다 사물함 이용을 희망하는 학우들을 대상으로 무료 사물함을 배정하고 있다. 이런 주요활동 이외에도 평소 운영활동을 통해 학우들이 도서관에서 분실한 물품을 되찾아주고 우산을 빌려주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도.자.위. 이상형?

도서관자치위원회는 결원이 생길 경우 공개적으로 신입을 모집하고 있다. 도서관자치위원회의 이상형은 투철한 책임감, 강한 인내력, 타인을 포용할 수 있는 도량이 있으면서 동시에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즐겁고 유쾌한 사람이다. 도서관자치위원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면 신입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낸 후 다시 면접을 통과하여야 한다.

힘든 순간 vs 보람 있는 순간

사실, 활동의 강제성이 가장 힘든 요인이다. 회의 때 결정된 사항은 좀처럼 예외를 인정해주지 않는 엄격함과 고액의 벌금제도는 자치위원들에게 큰 부담이다. 도서관자치위원회는 한 달 단위로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스케줄을 마음대로 정하기 어려운 것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다른 어려움을 들자면, 어떤 사안에 대해 학우들 간에 이해가 상충되어 모든 학우들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도 불만을 갖는 학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불만이 생긴 학우들의 항의를 받으면서 동시에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은 자치위원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서관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다. 그 중에서도 자리정리 후 깨끗이 정리된 열람실에서 학우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 있다. 특히 평소에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우들이 자리정리가 끝난 열람실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 도서관자치위원회로서 활동하는 보람을 느낀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좋은 열람실 환경은 열람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우들이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는데서 만들어진다. 최근 열람실 내에서의 에티켓 수준이 수년전보다 나빠졌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열람실 내에서 소음을 유발하거나 좌석을 독점하는 행위, 혹은 쓰레기를 방치해두는 경우 등이 전보다 많아졌다는 의미이다. 도서관자치위원회로 활동하는 입장에서 더욱 듣기 안타까운 말이다. 도서관은 학생이 주인이 되는 장소인 만큼 그 학교 학생들의 수준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 그런 만큼 모두가 조금 더 에티켓을 지키고 노력해서, 모든 학우들이 보다 기분 좋게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도서관자치위원회도 이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





정보와 문화가 있는 나노생명과학도서관에서 대학생활의 멘토를 발견하다

밀캠프가 심심해? 나노생명과학도서관으로 오세요!
여러분은 도서관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시나요?
도서관과 친해지면 더욱 알찬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1 나노생명과학도서관은?

부산대학교 나노생명과학도서관은 2006년 3월 부산대학교가 밀양캠퍼스에 나노바이오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고, 육성할 목적에 따라 구축된 밀양캠퍼스 분관이자 하나의 주제 도서관으로, 나노과학기술 및 생명자원과학 분야의 학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약 22만권의 장서와 100여종의 관련 저널을 소장하고 있으며, 600여석의 열람석을 포함한 학습공간 및 여가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2 나노생명과학도서관의 유용한 서비스

연구·학습 지원을 위한 서비스

학과별 학술정보 가이드 (<http://libguides.pusan.ac.kr>)를 통한 전공별 주제가이드 제작과 정보조사지원 등 심도있는 주제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검색 활용교육과 전문 DB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협정 기관을 통한 문헌복사(상호

대차) 및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주제 분야의 신간 자료를 선정·추천하여 구성원들의 폭넓은 연구와 교육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말대출 및 타 캠퍼스간 자료대출 서비스

대학생활원 학생들의 주말 여가시간 활용을 위하여 일반 대출이 되지 않는 DVD, 잡지, 취업지원자료 등의 주말대출 서비스와 타 캠퍼스간의 자료대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홍보/문화 프로그램 진행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인 뉴스레터(News Letter) 제작과 온/오프라인을 통한 도서관 바로알리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문화 프로그램으로는 '무박2일 독서캠프' 진행 및 재학생과 통학생들의 문화요구 충족과 하룻길 잉여시간 활용을 위한 영상프로그램을 학기 중에 진행하고 있다.

도서관자치위원회 운영

생명자원과학대학 재학생으로 구성된 도서관자치위원회를 운영하여, 열람좌석배정기와 사물함

관리, 열람실 자리정리, 열람실 이용 홍보 및 설문조사 등 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적인 도서관 열람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3 나는 오늘도 도서관에 간다

나노생명과학도서관은 도서관이 단순히 자료를 저장하고,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공간의 의미를 벗어나 대학문화가 있고 언제나 찾아와 쉴 수 있으며, 즐거움이 가득한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4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나노생명과학도서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열람환경 개선

제1~2열람실과 노트북 열람실의 노후화된 비품들을 교체하여 학습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트북 열람실을 친환경적인 분위기로 재시공함으로써 학습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였다.

새롭게 단장한 시설

오디오 부스 | 외국어 능력개발과 문화체험을 위한 9종의 여학용 잡지와 관련 매체 확보 및

음악자료 코너 신설
아트리움 | 독서를 통해 학업에서 지친 마음을 힐링 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인 아트리움을 '독서치료 자료코너'와 '고전코너'로 재단장
미디어부스 |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 6개의 미디어부스에는 신간 DVD 자료 구비
인터넷프라자 | 자료실 열람시간이 끝난 후에도 재학생들의 인터넷 검색 및 인터넷 강의청취가 가능한 인터넷프라자를 최신의 컴퓨터와 새로운 오픈형 검색대로 교체하고, 재학생 전용석(10석)과 자유석(5석)으로 구분하여 이용환경을 개선
홈페이지 개선 | 나노생명과학도서관 홈페이지

(<http://nanolib.pusan.ac.kr>)를 특성에 맞게 이용자 중심으로 새롭게 단장

4 이용자와 함께 성장하는 나노생명과학도서관

밀양캠퍼스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문화적인 혜택으로부터 다소 제한되어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문화와 젊음이 있고,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나노생명과학도서관은 '가고 싶은 도서관, 또 다시 찾고 싶은 도서관'이 되고자 중앙도서관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시설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다양한 문화컨텐츠와 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한, 이용자에 의한 공간이다. '살아있는 도서관' 문화가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서관에서 준비한 컨텐츠를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래를 꿈꾸는 청년기의 열정으로,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키는 대학생활의 멘토로 도서관을 적극 활용하기 바라며, 훗날 대학생활을 기억할 때 도서관이 가장 가까운 벗으로, 열정을 느꼈던 특별한 공간으로 추억되기를 희망해 본다.

앞으로도 나노생명과학도서관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밀양캠퍼스 문화의 중심이 될 것이다.



지성과 역사가 숨쉬는 대학의 심장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

최정태 지음 | 한길사 | 2011 | 319 p.

부산대학교도서관 소장정보

제1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HDM 027 최73*2]

나노생명과학도서관 4층 단행본실 [CM 027 최 73*2]

본 내용은 원본 도서의 일부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원본 도서에는 나머지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진출처 Wikipedia]



대학과 결혼한 도시 하이델베르크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날 때 가장 좋아하고 많이 찾는다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그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고색창연한 주황빛 성과 유유히 흐르는 네카어 강가의 빼어난 풍광, 세계적 성악가 마리오 란차(Mario Larza)가 「축배의 노래」를 부른 영화 「황태자의 첫사랑」의 무대였다는 낭만적인 배경 때문일 것이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영국의 『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0개 대학 중 47위에 오를 정도로 대단한 대학의 명성을 확인하고 대학 도시가 주는 분위기를 맛보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이델베르크라는 이름은 ‘신성한 산’이라는 뜻의 하일리겐베르크(Heiligenberg)에서 유래했다. 현재 이 도시는 인구 12만 명 중 4분의 1이 학생이어서 그야말로 대학의 도시이자, 도시가 곧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개교 625주년을 맞이하는 독일 최초의 대학으로, 신성로마제국 시대 교황 우르반의 허가를 받아, 1386년 선제후(신성로마제국 때 황제 선정권을 가지고 있던 제후국의 제후) 루프레히트 1세가 창립했다.

이 대학은 곧 유럽의 학문과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고, 역사를 쌓아가며 대학은 점점 자율성을 확보하고 낭만주의 사상이 퍼져, 1900년 4월 28일부터는 여학생에게도 교육의 문을 개방했다. 지금은 대학을 사회와 시민에게 개방하여 도서관 이용은 물론, 매주 일요일마다 500여 명의 하이델베르크 시민이 각 분야의 교수들로부터 특강을 듣는다.

독일 최초의 대학 도서관

시청 건너편 중앙에 도시의 상징인 성령교회가 서 있다. 대학도서관의 반석이 된 성령교회는 선제후 루프레히트 3세가 세웠다. 축조된 지 12년만인 1441년 성당이 완성되었고, 높이 82미터인 교회탑은 그보다 훨씬 뒤인 544년에 완공되었다. 그 안에 선제후 팔츠가 만든 도서관이 있다. 선제후의 이름을 따서 팔츠 도서관(플래티나 도서관이라고도 한다)으로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대학도서관의 시초다. 도서관은 점점 발전하여 1556년까지 '엘렉토 왕자의 도서관' 목록을 포함해 4,800종의 인쇄물, 500종의 양피지 필사본, 600종의 종이 필사본 등 대략 6,400종을 확보했다. 또한 1588년에 발표된 법령에 따라 독일 최초로 사서가 운영하는 전문직 도서관장을 제도화하고, 이 때 3개의 도서관을 확보했다.



도시와 대학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표지

일반적으로 대학도서관은 캠퍼스의 가장 핵심부인 대학본부와 학생회관과 함께 삼각벨트를 이루도록 배치하여 건축하는 것이 상례다. 2005년 봄, 개관 100주년을 맞이한 신축 도서관 역시 하이델베르크의 상징물로서 대학 중심부에 우뚝 서 있다. 본채 한 귀퉁이 위로는 청록색의 높은 첨탑 때문에 도서관이라기보다는 러시아풍의 사원이 연상된다. 신 고딕 양식으로 지상 6층, 지하 2층의 'ㅁ' 자 형태로 축조되고, 내부는 전형적인 바로크 양식이다. 열람석 어디에 앉아도 푸른

숲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정원은 짙은 주황색 건물과 조화를 이룬다.

한편 안으로 들어가면 유럽의 도서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큰 홀이 보이지 않고 높은 공간에 철골 기둥을 세워 전체를 1, 2층으로 나누어서 2층은 서가와 열람공간으로, 아래층은 멀티미디어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 도서관의 장서는 꾸준히 증가해 1934년에는 마침내 총 장서 100만 권을 돌파했다. 하이델베르크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115만 권의 장서를 보유, 독일에서 가장 큰 도서관 중 하나가 되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귀중한 장서들은 안전한 장소로 옮겨졌지만 불행히도 4만여 권은 인멸되고 말았다.

현재 하이델베르크 대학도서관은 교양학부와 대학원, 그리고 대학부속 성령교회의 책들이 주축이 되어 장서 350만 권과 1,000종의 최신 과학 및 의학 학술지, 그리고 230개의 연구실과 캐럴실을 갖추고 있다. 150명에 달하는 사서는 종래의 전통적 문헌검색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자서비스로 무장하고 마이크로폼자료, 전자 데이터베이스, E-저널, 전자 우편을 통해 이용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P.O.B. : 10 57 49, D-69047 Heidelberg, Germany
<http://www.ub.uni-Heidelberg.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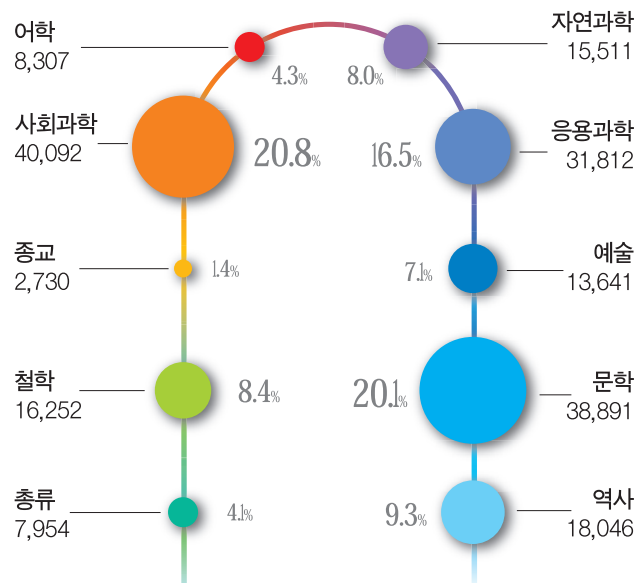
2014년 상반기를 빛낸 책과 효원인

2014년 상반기에는 어떤 주제 분야의 책을 가장 많이 읽었을까? 효원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책부터 가장 많은 책을 빌린 사람까지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도서대출 통계로 살펴본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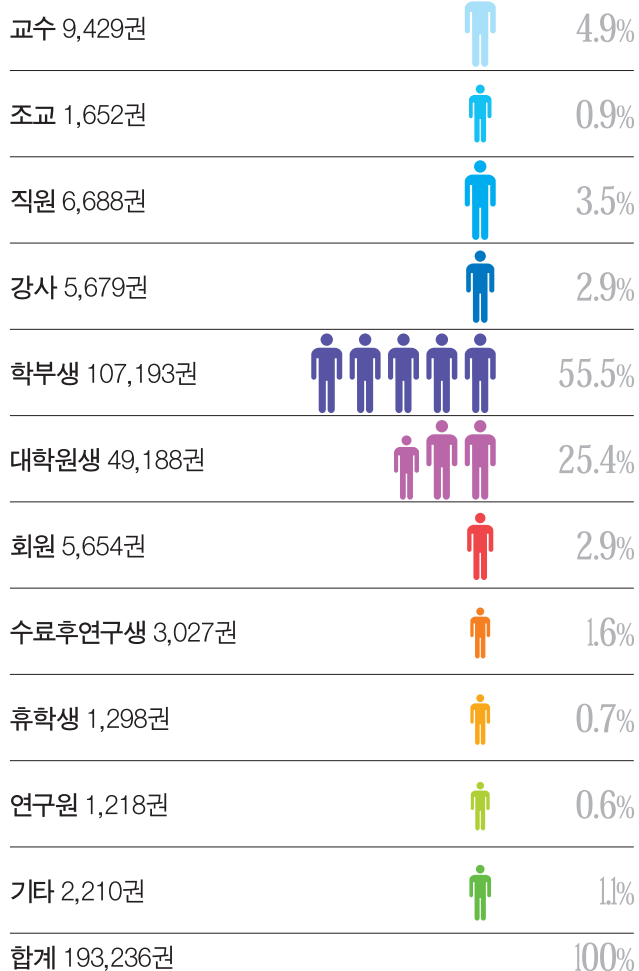
주제별 vs 신분별로 살펴본 대출 통계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부산대학교도서관 대출 권수는 총 193,236 권으로 나타났다. 주제별로는 사회과학 분야가 40,092권(20.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문학 분야 38,891권(20.1%) 응용과학 분야 31,812권(16.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는 학부생이 107,193 권(5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생 49,188권(25.4%), 교수 9,429권(4.9%)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주제별 대출 통계 |



| 신분별 대출 통계 |



와우! 다독(多讀)하는 그대

신분별 가장 많이 책을 빌린 효원인 Best 3			
교수	1위	곽차섭	인문대학 사학과
	2위	홍성화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3위	노철화	경제통상대학 무역학부
학생	1위	유시현	공과대학 고분자공학과
	2위	오진영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민윤리학과
	3위	정대현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직원	1위	채양주	PNU-IFAM연구소
	2위	여운선	도서관
	3위	김가영	경제통상대학통합행정실

2014년 상반기 효원인이 사랑한 책들

2014년 상반기 이용도서 종합 1위는 종교와 인종, 가치관을 뛰어넘어 진정한 인생의 잠언을 들려주는 책, 헤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쌤앤파커스, 2012)이 차지했다. 그렇다면 주제 분야별로 가장 많이 이용된 도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주제 분야별 가장 많이 이용된 도서 Best 10	
000 총류	고전(古典)의 힘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센터 꿈결 2013
100 철학	철학이 필요한 시간 강신주 사계절 2011
200 종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민 쌤앤파커스 2012
300 사회과학	총, 균, 쇠 재레드 다이아몬드 문학사상사 2005
400 어학	Ventures 4 Gretchen Bitterl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500 자연과학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을유문화사 2010
600 응용과학	아프리카 청춘이다 김난도 쌤앤파커스 2010
700 예술	봉인된 시간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분도출판사 1991
800 문학	1984 조지 오웰 문학동네 2009
900 역사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박시백 휴머니스트 2008

한편, 교수, 학생, 직원 등 신분별로 가장 많이 이용된 도서를 조사한 결과,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휴머니스트, 2008)이 공동으로 1위를 차지했다. 『조선왕조실록』은 원전을 바탕으로 정사(正史)를 생생하게 복원한 대하역사만화시리즈이다. 이 책은 정치사를 중심으로 주요 사건과 해당 사건에 관련된 핵심 인물들의 생각과 처신을 살펴보면서 역사를 흥미진진하게 그려내어 다양한 독자층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신분별 가장 많이 이용된 도서 Best 3

순위	신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연도
1위	교수	(공동)	박시백	휴머니스트	2008
	학생	조선왕조실록	박시백	휴머니스트	2008
	직원	비뢰도	김류흔	청아람	2003
2위	교수	자치통감	사마광	삼화	2007
	학생	(새로 만든) 만나라 이웃나라	이원복	김영사	2012
	직원	비뢰도	김류흔	청아람	2003
3위	교수	한국 근대의 풍경과 지역의 발전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
	학생	신	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책들	2008
	직원	정글만리	조정래	해냄	2013

2014년 하반기를 빛낼 주인공은?

독서의 계절을 맞아 도서관에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제2도서관 1층 로비에서 2013 효원인 추천도서 전시회 '효원 감동나눔 책읽기' 두 번째가 열리며, 후속으로 '2014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도 11월 30일까지 공모할 예정이다. 또한, 2011년에 시작해 해마다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도서관 독서낭독회 '책 읽어주는 효원인'이 11월 13일 제2도서관 1층 오디오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4년 하반기에도 도서관과 함께하는 효원인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

이제는 드라마셀러 시대?

드라마 속 ‘그 책’

요즘 드라마를 보면 책이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2005년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 등장한 미하엘 엔데의 『모모』가 주목을 받고 책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드라마를 통한 책 홍보 효과가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2011년 <시크릿 가든>에서는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2013년 <주군의 태양>에서는 기무라 유이치의 『폭풍우 치는 밤에』가 등장했다. 드라마에 등장하며 주목받는 책들을 ‘드라마셀러’라고 하는데, 장르도 다양한 드라마셀러가 베스트셀러 순위 까지 바꾸고 있다.

때로는 책 속 한 구절이 드라마 주인공의 심리를 더 잘 표현해내기도 하고, 책을 통해 드라마의 결말을 예상해보는 새로운 흐름까지 생겼다. 드라마 속에 등장하며 주목받았던 바로 그 책! 지금 함께 만나보자.

에드워드 틀레인의 신기한 여행

케이트 디카밀로 글 | 배그렘 이바톨린 그림 | 김경미 옮김 | 비룡소 | 2013

2006년 '보스턴 글로브 혼 북 상' 수상작. 몸과 마음이 모두 차가운 도자기 토끼 인형, 에드워드 틀레인이 여행을 통해 사랑만 받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교만한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누군가를 사랑하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게 된다는 감동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2013-2014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도중환 시 | 송필용 그림 | 랜덤하우스코리아 | 2007

도중환 시인이 30년 동안 펴낸 아홉 권의 시집 중에서 아끼고 좋아하는 시 61편을 골라 '물의 화가'라 불리는 송필용 화백의 그림 50점과 함께 엮은 시화 선집이다. '고요와 명상'을 형상화한 두 작가의 '마음의 풍경화'가 독자들에게 위로를 전해준다.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2014



나는 살인자를 사냥한다

배리리가 지음 | 권도희 옮김 | 알에이치코리아 | 2012

유명 YA(Young Adult) 소설 작가 배리 리가의 첫 스릴러로 연쇄 살인마를 사냥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10대 주인공을 다루어 처음 YA 스릴러 소설로 론칭되었던 이 소설은 드물게도 출간 전 원고를 읽은 프랑스와 독일 등의 유럽 성인 출판사들이 10대를 주인공으로 한 '양들의 침묵'이라는 호평과 함께 성인 스릴러로 계약, 출간함으로써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2014

콜레라 시대의 사랑

가르시아 마르케스 지음 | 송병선 옮김 | 민음사 | 2004

카리브해 어느 이름 없는 마을, 19세기 말부터 1930년대까지가 소설의 배경이다. 사랑하는 여인 페르마나와 함께 하기 위해 50여년을 기다리는 플로렌티노의 이야기. 이 작품은 결국 사랑이 세월의 흐름과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인내와 헌신적인 애정이 보상받는다라는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런 이면에는 라틴 아메리카 사회에 관한 비판과 풍자가 숨어있다.

드라마 <따뜻한 말 한마디>, 2013~2014



강신주의 다상담

강신주 지음 | 동녘 | 2013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한 주제들을 선정해 사람들의 사연과 고민을 받아 강신주가 답해준다. 그동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병어리 냉가슴으로 앓아왔던 수많은 고민들을, 철학자 강신주가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준다. 철학자의 상담이라고 해서 삶의 존재와 이유를 묻지 않는다. 지금 여기에 살고 있고 있는 우리들의 맨얼굴로 맞대고 이야기한다.

드라마 <세 번 결혼하는 여자>, 2013~2014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신경숙 지음 | 문학동네 | 2010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추적해가는 작품이며, 여러 개의 종소리가 한꺼번에 울리는 듯 한 소설이다. 가장 깊이 절망하고 고민하고 상처받았기에 오히려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시간.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는 바로 그 청춘의 이야기이다.

드라마 <신사의 품격>, 2012



이중섭 1916-1956: 편지와 그림들

이중섭 지음 | 박재삼 옮김 | 다빈치 | 2011

1953년부터 1955년까지 이중섭이 일본에 있던 아내 이남덕(일본명 아마모토 마사코) 여사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이남덕 여사가 이중섭에게 보낸 편지를 엮은 것이다. 일본어로 쓰여진 서간을 박재삼 시인이 번역하고, 이중섭의 작품 도판을 실었다. 당시 이중섭의 궁핍했던 생활상과 아내와 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예술에 대한 광적인 집착 등이 그의 육성을 통해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다.

드라마 <결혼의 여신>, 2013

원더보이

김연수 지음 | 문학동네 | 2012

이 소설은 한 소년의 성장기이자 이제는 지나간 시절에 대한 이야기이다. 저마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의 사연들에는 우리가 지나온 시절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우주에 많은 별이 있는데도 우리의 밤이 그토록 어두운 것은 우주가 아직 젊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서로를 껴안은 우리의 몸이 그토록 뜨거운 것은 우리가 아직 젊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슬픔과 슬픔이 만나면 위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드라마 <신사의 품격>, 2012





영화관에서 놓친 영화, 도서관에서 다시 보자!

매주 새로운 영화에 밀려 스크린 상영을 접고 DVD로 출시된 작품들이 많습니다. 저 영화 꼭 봐야지 다짐을 했다가 타이밍을 놓쳐 아쉽게 보지 못한 영화가 있으신가요? 올 가을에는 영화관에서 놓친 영화, 도서관에서 다시보기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영화는 제1·2도서관 1층 iCOMMONS 내 미디어룸에서 언제든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녀

개요 드라마 | 126분 | 2014. 5.
감독 스파이크 존즈
출연 호아킨 피닉스(테오도르역), 스킷렛 요한슨(사만다역)
내용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던 테오도르에게 다가온 그녀! 올해 가장 독창적인 로맨스! 서툰 당신을 안아줄 이름, her!
한줄평 '그녀의 목소리에 경배를 (김현민 영화저널리스트)



디태치먼트

개요 드라마 | 97분 | 2014. 5.
감독 토니 케이
출연 애드ريان 브로디(헨리역), 새미 게일(에리카역)
내용 위기의 교사, 위험한 아이들을 만나다!
이전의 교육영화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영화!
한줄평 아이들과 같이 사는 세상, 아이들이 스승이다 (유지나 씨네21 기자)



우아한 거짓말

개요 드라마 | 117분 | 2014. 3.
감독 이한
출연 김희애(현숙역), 고아성(민지역) 등
내용 동생이 죽었다. 하지만 아무도 이유를 알지 못한다.
행복한 줄만 알았다. 몰라서 미안해...
한줄평 속 깊은 포옹 (박혜은 맥스무비 편집장)



다이버전트

개요 SF/액션 | 139분 | 2014. 4.
감독 닐 버거
출연 쉐일린 우들리(트리스역), 케이트 윈슬렛(자니역)
내용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금기된 존재, 다이버전트! 선택하라! 행동하라! 싸워라! 그들의 선택이 세상을 바꾼다!
한줄평 고급스럽진 않아도 의미심장한 혁명철학 (오동진 영화전문기자)



캡틴 아메리카 : 윈터솔져

개요 SF/어드벤처 | 136분 | 2014. 3.
감독 조 루스, 앤스니 루스
출연 크리스 에반스(캡틴아메리카역), 스킷렛 요한슨(블랙 위도우역)
내용 어벤저스를 향한 최악의 위기! 아무도 믿지 마라! 베일에 쌓여있던 어벤저스의 본부, 월드의 실체가 드러난다!
한줄평 클래식과 참단을 남나드는 캡틴의 증명 (송경원 씨네21 기자)



트랜센던스

개요 SF/액션 | 119분 | 2014. 5.
감독 윌리 피스터
출연 조니 데프(윌 캐스터역), 모건 프리먼(조셉 타거역)
내용 인간의 두뇌가 업로드된 슈퍼컴 '트랜센던스' 당신의 그 어떤 상상도 이 영화를 초월하지 못한다!
한줄평 억압과 자유의 관계방정식, 어떻게 풀 것인가 (유지나 씨네21 기자)

그 외 따끈한 신작

천주정 드라마 | 130분 | 2014. 3. | 지아 장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어드벤처 | 142분 | 2014. 4. | 마크 웹
페이스 오브 러브 드라마 | 92분 | 2014. 4. | 에리 포신

인간중독 로맨스 | 132분 | 2014. 5. | 김대우
런치박스 드라마 | 104분 | 2014. 4. | 리테쉬 바트라

내가 보고 싶은 책을 스마트폰으로 본다? 도서관에서 만나보는 스마트한 독서생활

New 교보 도서관은



교보문고와 제휴된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것으로 부산대학교도서관에서 대출이 가능한 이용자라면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무료로 도서 이용이 가능한 앱**입니다. 따라서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도서관의 기능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를 대출/반납/예약/연장할 때에는 인터넷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하지만, 도서를 열람할 때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사전에 다운로드 받은 도서는 대출 기한까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New 교보 도서관' 앱 이용은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후 설치하여 [도서관 검색]에서 부산대학교를 선택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이번 가을에는 스마트하게 독서를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New 교보 도서관 앱 특징



이용방법 안내



안드로이드폰, 아이폰전용 앱 다운로드

도서관 검색에서 [부산대학교] 선택

원하는 도서 검색 후 대출하여 다운로드 진행(도서관 ID/PW 입력)

[내서재]에서 대출된 도서 읽기

* 자세한 이용방법 안내는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pusan.ac.kr>) [자료검색]-[전자자료]-[e-Book] 코너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Special Focus

독립선언문 필사본 실린 '비고장' 기증



▶(왼쪽부터) 비고장 표지, 감사패 전달식(김기섭 총장, 기증자 이철우 씨)

1919년 3.1만세운동 당시, 고종 황제가 일제의 사주에 의해 독살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온 국민이 결기할 것을 독려한 천도교 지하신문인 '국민회보(國民會報)'와 민족대표 33인이 조선의 독립을 천명한 '독립선언문' 필사본이 실린 '비고장(備考帳)'이 도서관에 기증됐다.

'비고장'은 1913년부터 천도교 연양교구에서 작성한 것으로, 성금 내역 등이 담겨있는 39면의 기록물이다. 기증된 '비고장'은 당시 천도교 연양교구장이었던 김교경(독어교육과 김용경 교수의 조부) 선생이 필사한 것이다. 김교경 선생은 고종 황제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머물던 중 교인 이규장 씨에게 이 필사본을 전하며 연양지역의 독립운동을 촉구했다. 이후 연양장날인 1919년 4월 2일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는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장터에서 독립선언문 필사본이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는 독립운동가 이규천 선생의 후손인 천도교 연양교구 이철우 씨가 소장해 오던 중 김용경 교수와의 협의를 거쳐 부산대에 기증했다. 김기섭 총장은 귀중한 사료를 기증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에게 8월 6일 본관 5층 총장실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도서관은 이 문서가 3.1독립운동 연구에 가치가 높은 자료인 것으로 판단해 귀중본 및 근대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증 자료는 현재 제1도서관 3층 고문헌자료실에 소장돼 있으며, 도서관 내 열람이 가능하다.

문의 | 도서관 고문헌자료실 051-510-1824

전자자료 이전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2014 도서관 전자자료 이용 박람회 개최



'2014 도서관 전자자료 이용 박람회'가 9월 24, 25일 양일간 제2도서관 1층에서 열렸다. 도서관에서 올해 처음 실시한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23개 학술 전자자료 업체와 약 1,900여 명의 교내 구성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자자료 시연 및 체험, 전자자료 이용교육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참가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스탬프 이벤트를 비롯,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도서관에서는 교내 연구자와 학생들의 교육·연구·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Web DB, e-Journal, e-Book 등 각종 전자자료를 구입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자자료를 접함으로써, 전자자료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문의 | 도서관 자료개발팀 051-510-1804

청일전쟁 연구 권위자 박종근 박사 기증문고 설치 기념 학술대회 개최



▶(맨위) 학술대회 기념촬영, (왼쪽) 박종근 박사 기증문고, (오른쪽) 우파장학회 최영석 회장 축사

도서관은 청일전쟁 연구의 권위자인 재일사학자 故 박종근 박사의 소장 자료를 기증받아 문고를 설치하고, 이를 기념한 학술대회를 9월 16일 학내 인덕관에서 개최했다. '120년 전 청일전쟁과 동아시아'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박종근 박사의 청일전쟁 연구와 그 위치 ▲1894년 일본 정부의 청일전쟁 개전 논의와 성격 ▲중국은 청일전쟁을 어떻게 기억해 왔는가 ▲청일전쟁에 대한 한·일의 기억과 전승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문들이 발표됐으며, 이어 열띤 질의응답과 토론이 펼쳐졌다.

청일전쟁은 1894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청(淸)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다툰 전쟁으로, 동아시아에 이어져 오던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중지부를 찍고 일본을 새로운 패자로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동양 사적 큰 의의를 지닌다.

제1도서관에 설치된 박종근 박사 기증문고는 박사가 소장했던 조선근대 역사연구 관련도서 8,477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다수의 자료가 포함돼 있다. 이 자료들은 박사의 오랜 고향 친구인 우파장학회의 최영석 회장을 통해 2012년 부산대에 기증됐다. 이날 최영석 회장은 학술대회를 기념해 '도서관 학술연구지원금' 3천만 원을 기탁했다. 도서관은 기증문고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820

부산대학교 역사자료를 기증받습니다

우리대학교 도서관과 기록관에서는 전국 최초의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대학과 관련된 각종 기록물을 꾸준히 수집·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은 개교한지 69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 대학교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넘어서 세계로 나아가는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집하고자 하오니 부산대학교의 동문과 교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집 대상 | 부산대학교 역사와 관련한 모든 기록물 및 도서

- 1) 강의·연구 기록물
 - 수업 및 연구 관련자료, 집필 원고 등의 기록물
 - 개인 연구저작물
 - 회귀본 도서 및 기록물
- 2) 행정 기록물
 - 학과 및 부속 기관 행정 문서 및 회의 기록
 - 기관 요람 및 편람 자료
 - (※ 일반 출판사, 외부 기관 등에서 발간한 자료는 제외)
- 3) 박물관류
 - 우리 대학교 교표, 교기, 뱃지, 교복, 기념품, 상장, 박물관류
 - 학과 및 부속기관 현판, 임명장
- 4) 홍보물 및 사진
 - 캠퍼스 전경,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각종 축제 등) 관련 앨범, 필름, 사진
 - 행사 관련 팸플릿(소식지, 안내물, 초청장, 홍보물) 등
- 5) 기타 우리 대학과 관련한 역사자료로 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

수집기간 | 연중(상시 수집)

수집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필요시 기록관에서 지정 장소 방문 및 수집 가능)

문의처

기록물 부산대학교 기록관

전 화 : 051-510-3298
팩 스 : 051-510-3299
이메일 : pnuarchive@pusan.ac.kr
주 소 :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 2(장전동) 제2도서관 1층 기록관

도서 부산대학교 도서관

전 화 : 051-510-7600
팩 스 : 051-514-0658
이메일 : donation@pusan.ac.kr
주 소 :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 2(장전동) 제1도서관 1층 자료개발팀

기타 | 수집대상이 아닌 자료는 반환해 드립니다.(원소유자 요청이 있을 경우 파기)

부산대학교 도서관장·기록관장